

시론

# 내가 맞은 8·15해방

— 쟁취하지 못한 해방의 비극 —

안 병 무  
한신대 명예교수

## 간도 땅에서 맞이한 8·15

나는 간도 연변에서 8·15를 맞이했다. 1930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가 소학교 입학한 첫째까지 김일성·홍범도라는 장군들의 신화가 소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밤에는 공산군과 독립군이 번갈아 밤손님으로 드나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백지창에 박아놓고 간 '때라'를 아버지가 뽑아서 훑쳐보듯이 읽고 아이들에게는 끝 끝내 비밀에 붙이던 그런 분위기가 깡그리 없어진 지도 12~13년이 지나서였다.

일본 관동군의 위력은 신화를 낳고 있었다. 천하무적의 부대로서 대전(大戰)의 결전장은 만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추측이 나돌 정도로 일본군의 교두보라는 평가가 떠돌았다. 동만, 압록강 연안에 가끔씩 나타난다는 신문이 '비적'이라고 부르는 독립군 게릴라 습격의 보도가 아주 사라져버린 것도 1936, 37년경이었다고 기억된다. 일본 관동군과 조선군의 연합전선이 그토록 강력했다는 반영으로 받아졌다. 이런 맹목적인 '신화'가 비록 연합군의 반격이 날로 강화되는 보도를 접해도 일본군이 항복하리라는 상상을 못하게 했다.

간도는 1930년대 중반까지도 민족정신이 살아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1930년대 말경부터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항일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분위기였다. 연합

군의 공세가 일본 본토로 접근해오는 것을 들으면서도 독립운동을 마음으로나마 연계시키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기는 민에게는 군이나 징병에 끌려가는 이외에는 집단으로 모이는 기회가 완전 박탈당했다. 단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기독교회였다.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집단을 통해 독립운동의 면모를 간간히 전해 읽을 수 있었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는 완전히 동공상태에 들어갔다. 정말 한민 전체가 체념과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히로시마에 던져진 원자폭탄과 더불어 일본국왕의 무조건 항복선언은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사건이었다. 간도는 소련군에 의해 접수되었다. 미군이 관동군을 겁내어 만주와 북조선의 무전승권(無戰勝權)을 소련에 주었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소련군은 속속 무혈 무장해체를 해가고 있었다.

내가 숨어 있던 곳은 연결과 용정을 잇는 큰 길가에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도들이 모여사는 곳이었다. 라디오로 들은 일본 항복 소식을 복음처럼 소리치며 동리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장 좋은 나들이 옷을 입고 다음날 몇 시경에 '소련해방군'이 신작로를 통과할 테니 그리로 모여 환영하도록 했다. 이불호청을 찢어 "우라 소비에트 쏘다트, 소련군 만세"라고 쓴 현수막을 세우고 기다리자 MADE IN USA 지프차와 트럭에 실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중처럼 삭발한 '해방군'이 차를 세우더니 치마 드레스 라디오 모조자 다치느 레코 프인하고 보냈다. 이렇게 당하는 시골 아낙네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환영했는데, 그날 밤부터 매일 저녁이면 10여 명씩 춤을 든 채 작당해오는 '해방군'의 여자사냥 때문에 온 동리 사람들은 뜬눈으로 임전태세의 전략을 짜야 했다. 어처구니 없는 배신!

그 일대의 행정기구는 그대로 마비되었다. 학교, 읍·면 사무소, 우체국 할 것 없이. 학병을 피해 숨어 있던 나와 또 한 친구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급속히 조직하여 그런 기관들을 속속 접수했다. 혹시 어디 숨어 있는 이른바 숨은 지도부(세도우 캐비닛)가 있을까 했으나 아무런 저항세력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용정에 위치한 일본 총영사관 자리를 접수하고 자유대를 조직하고 아무 표시도 없는 완전 붉은 기를 휘두르며 주민을 장악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총서기라는 사람은 우연한 인연으로 잘 아는데, 일제 때 중국, 북경, 상해 등으로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다. 장사 내용은 마약이었는데 그것으로 그가 공산당 조직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만주에 흩어져 있던 좌익 세력의 갈래가 너무 많아서 그 어느 쪽인지 식별할 능력이 없었다. 저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태극기를 만들어 들고 애국가를 소리쳐 외치고 시가행진을 위시해서 계속 축하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단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공공연히 부

정하고 나섰다. 그리고 축하모임으로 음악과 단막극이 뒤섞인 축제를 준비했는데 사전검열을 강요하는 저들이, 학병을 피해 음지에서 민을 규합하여 그 지역의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가상적인 내용을 전면 비판하면서 우리의 해방은 어디까지나 소련해방군에 의해서 된 것이지 우리가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수정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아 국제공산당이거나 아니면 일국일당제도를 고집하는 중국공산당 소속일 수도 있다. 저들과 대결양상을 띤 것은 오직 그리스도교회뿐이었는데, 뚜렷한 것은 그리스도교회는 의식했든 안했든 민족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다.

체포령이 내려다. 밤중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지프차로 달려와 이 소식을 알리면서 내일 새벽 안으로 여기를 떠나라는 것이다. 해방된 감격으로 충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가 왜 체포 대상이 됐는지... 비밀리에 배워서 동급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그려주고 동해물과 백두산을 가르쳐주며 눈물을 흘리던 그 그리움의 현실이 왔는데, 그래서 감격에 날뛰는 20세를 갓 넘은 젊은 사람을 증오하는 세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불만이 조용히 퍼져 갈 때 8로군의 한국부대가 오고 있는데 그 선두에는 우리 학교 졸업생인 '무정'이라는 장군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오다는 것이다. 이에 허우 어우 미우 태극기르 아네오우 세오우 게초크너가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 부대는 곧장 사라져버렸다. 조선으로 간 모양이다.

그런 감정을 정확히 따질 새도 없이 가족을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 새벽이 되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생각하며 눈물짓던 내 고향에 들어섰는데, 그것은 우리를 끌어안는 품이 되지 못했다. 처음 나타난 것은 파발총을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한테 소지품을 뺏는 이들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살벌한 것은 여기저기 허술하게 입은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였다. 그리워하던 고향을 찾아가거나 적어도 들렀다가 월남을 하더라도 발걸음이 그리로 향해야 할 텐데 부모님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의사를 비치지 않았으며, 나 역시 말로라도 그런 제안을 할 엄을 못했다. 그만큼 내 고향 이북땅은 낯설고 공포스러운 땅이었다. 출발부터 월남이 목적인 것은 사실이었다. 만주에서 서울로 보내던 라디오 보도가 하루종일 들려왔는데 라디오를 통한 미국 산하의 이남은 자유와 행복이 첼첼 넘치는 해방된 땅임을 인식시키고도 남았다. 이 사실과 그때 하나밖에 없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마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무조건 월남하게 한 것이다.

38선은 중국과 한국을 가로질렀던 국경인 두만강보다 더 살벌한 국경이었다. 안내자를 따라 황혼의 산길을 타고 오다가 바로 저기가 이남이라는 그 사람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남녀노소가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경주하듯 재빨리 달려갔다. 그리고 모두 누가 선창한 것도 아닌데 악청을 내면서 '만세'를 연거푸 불렀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한국경찰도 군대도 아닌 버릇없는 미국 군졸들이

었다. 세수도 변변히 못하고 개나리꽃집을 이리저리 달고 들어오는 우리가 그들에게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될 까닭이 없었다. 우리가 정말 독립된 민족이라면 집주인들이 먼 길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미군들에게는 구차스러운 구제대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총대를 들고 지휘하면서 남녀노소에 대한 아무런 구별이나 사전승인 없이, 허연 밀가루 같은 살충제가 든 분무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헤쳐대면서 뿜어대는 것이다. 막 잡아먹으려는 동물을 살균하듯이... 그 순간의 실망과 분노는 여기도 독립된 내 땅이 아니라는 확실한 인식을 주었고, 아직까지 나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 본 일이 없다.

### 독립은 쟁취하는 것이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다. 남의 힘으로 주어지리라는 독립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쓴경험을 연속한 것이다. 이남은 미국을 하늘같이 믿었고 이북은 소련을 그랬다. 그런데 미군 자체는 한국민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역사의 기록은 입증하고 있다. 전선에서 뼈가 굵고 한국에 대해서 백치 같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국에 늦게 상륙해서 한국사람에게 악귀와도 같은 일본 점령군들

내놓고 보니 미군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고 현지 군인들이 임기응변으로 통치해왔던 것이다. 그것이 저들이 배운 민주방법 형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저들의 실정이 너무나 거둬됐다. 이에 비하면 소련은 분명한 정책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무명의 젊은 장교를 옹위하여 수령으로 만들고 장차 공산주의로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이다. 그러길래 해방되자 무력통일을 위한 준비를 속속 진행했고 마침내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전쟁으로 한국을 사회주의로 통일시키려던 소련도 우리 민족의 편은 아니지만 한국을 갑자기 공백상태로 만들어 공산국이 오판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유발한 미국도 우리의 친구는 아니다. 수십 수백만의 우리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두 쪽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결과는 민족독립은 쟁취할 때만 가능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만용으로라도 제 힘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몸부림을 쳤다면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며, 전후 5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냉전체제의 유일한 제물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미소협상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되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무력하게 하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독립을 제일 목표로 삼고 우리의 힘으로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의식이 분명했다라면 아무리 총칼을 갖고 분단선을 만들었어도 그렇게 가볍게 분단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 우리에게 38선과 맞서싸우는 민의 투쟁이 없었는가? 그것이 독립을 가로막는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것이 독립과 직결된 어처구니없는 인위적인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았던들 우리 민은 게릴라전이라도 펴서 38선을 거부했을 것이다. 비록 일제시기에서나마 현대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기에 38선을 남의 집 담 넘듯 숨어서 다닐 줄이나 알고 이것은 내 땅이라고 도도히 손에 총이라도 들 각오가 없었는가

결국 우리 모두가 독립이 주어질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한국병'이라는 말을 장난처럼 쓰고 있지만 정말 '한국병'을 지적한다면 바로 민족독립에 대한 '의존병'이다.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이조 말엽에 식민지세력이 극성을 부린 이유도 있지만 한국의 위정자들이 도끼나 낫을 들고라도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생각보다 일본이나 소련이나 청국에 의지해서 독립을 유지하려는 파벌전만 계속하다가 나라를 수두리째 잃어버리지 못하는가

나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그대로 찬양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으나 자기의 힘을 기르겠다는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아 망상가로 그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의 선상에 있다

이승만, 김일성 일당은 통일된 민족보다 자기 세력을 구축할 교두보 형성에 혈안이 되어 민족을 재빨리 분단하여 각기 분단정권을 선언했다. 사람들 중에는 김일성의 남진도발을 통일이념의 행동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국토통일'은 이룰지 몰라도 '민족통일'에는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여운형과 김구는 하나의 독립민족을 추구해야만 진정한 해방이 온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독립투사로 두고두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헤게모니의 광신자들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살되고 말았다.

50년이 넘도록 우리는 줄곧 민족통일을 외쳐왔다. 그 초반에 김일성세력에 의한 무모한 무력통일 시도도 있었지만, 그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민족통일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도외시한 만행이었다.

민의 차원에서는 통일염원이 들끓고 있었지만 역대 독재정권들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의지가 없는 제스처로 민을 희롱했을 뿐 반공법의 칼을 가는 일에 몰두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통일과제를 미국을 위시한 외국세력에 의해서 이루되기를 바라는 실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많은 문제 중에 적은 문제라고 보아도 이겼으나 민족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를 치사시킬지도 모르는 '우리의 병'이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의존독립운동병'인가. 어쨌든 미군 주둔이 우리나라 독립에 절대 불가결의 요소인가. 이조 말엽이나 해방 이후에 외국세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망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같은 의존적 태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아직 독립국가로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해방 50년이라는데 오늘날도 미군에 절대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우리들이 그들의 주둔비를 책임지고 그들에게서 엄청난 무기를 사들일 능력이 생겼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군사정권을 한국군이 이양받았다는 것으로 자만하려는가.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있다. 전쟁이 났을 때만!—그 본래의 권리 근거가 생긴다. 그런데 평화시에만 국한시킨 지휘권이란 예비군 동원 개념의 활용인가.

오늘도 해방 50년째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민족 속에 불붙고 있는 통일을 위한 남북간 교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50년간에 소외됐던 거리를 매우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년 동안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왔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책임자는 예외없이 남북 수령회담을 제의하는 것을 상비약같이 썼으며,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남북회담을 개최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희롱하는 일을 계속해 왔을 뿐이다.

그런 것 외에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기억되는 것은 6·25전쟁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현상이었고 많은 피를 흘린 우리의 전쟁이었는데, 왜 정전회담은 한국이 제외된 미국에서 주도되는가. 그런 수수께끼가 이번에는 증폭되었다.

오래 동결되었던 해빙의 신호이고 냉전체제 종식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북과의 교류를 상담하는 데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이 독점하고 한국정부는 구경꾼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혹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정책을 바꿔야만 하는가!

여기서 세삼 미국정권에 시비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한국정부가 정말 독립된 정

부라면 이런 일을 남에게 맡기고 기다리는 자세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민족 문제를 미국에 맡기고 하회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에게 큰 불안요소 중의 하나는 역대 집권자들의 허위의식이다. 경제지표의 외적 성장에 자만하여 중진국에서 선진국, 나아가서는 일류 국가가 되는 일이 코앞에 있는 현실처럼 과장하는 일이다.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사기를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실력있는 정부의 수반임을 시위하기 위해서 돌려받을 기약 없는 차관을 가볍게 약속하거나 민과의 합의 없는 협정을 체결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파견해서 많은 우리의 젊은 생명을 바쳤다. 그런데 이런 허장지세가 민에까지 만연되어 관광으로 세계에 나가 가장 호화로운 소비민족으로 시위를 한다. 최근에만도 연발하는 크고작은 사건들은 바로 우리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런 집안 꼴을 보면 그것은 조소받아야 할 허세 아닌가.

이것은 지금도 국제무대에서 의기소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제일과제는 민족통일이라는 확고한 재인식 아래서 행동해야 하겠다는 말이다. 통일운동은 우리의 국토를 넓힌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국토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오래 해야 할 민족독립국을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유엔 가입국이고 세계가 한 국가로 상대하는 한 우리는 엄연한 독립국가라는 강변이 있겠으나 그것은 통일의 당위성과 맞물리지 않는다. 통일문제가 없었으면 6·25전쟁도 없었을 것이며, 주변국에 그토록 종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무엇보다 그토록 막대한 군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가장 발달한 창의력을 발휘할 젊음의 성장을 차단하는 강제 군복무라는 소모전도 없을 것이다.

민족통일은 민족독립운동이다. 민족독립 없이는 민족에너지의 누수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